

최근 원/달러 환율 동향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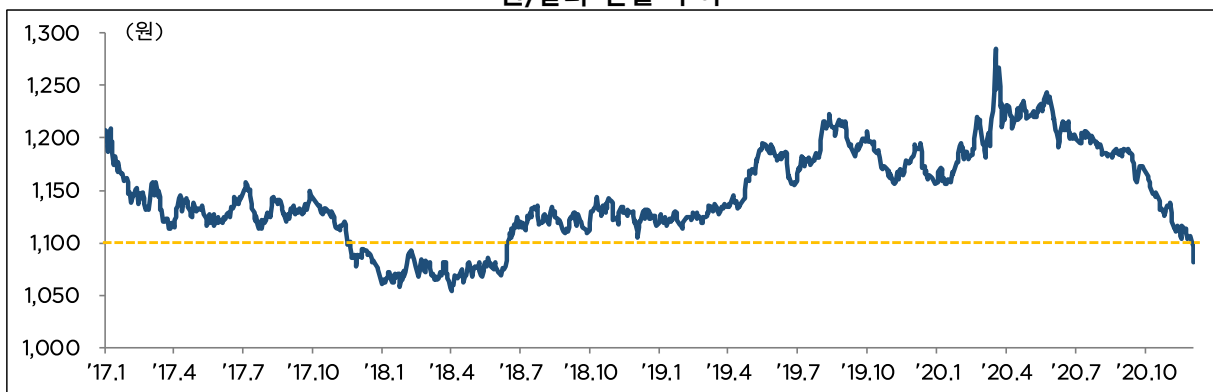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혜진 (ghjkim@kdb.co.kr)

- ◆ 6월 이후 달러화 약세, 위안화 강세 흐름이 조성된 가운데, 9월 이후 수출 회복,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여 12.3일 1,100원선을 하회
- ◆ 당분간 기존 원/달러 환율 하락요인이 지속되어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
 - 다만, 수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되고,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관련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

□ 최근 원/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심화되어 12.3일 1,100원 밑으로 하락

-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3월 중 1,285.7원으로 급등한 후 진정되어 8월까지 1,200원선 부근에서 등락하였으나, 9월 이후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
- 10월 중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인 1,150원대를 기록한 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12.3일(1,097.0원) 1,100원선을 하회한 후, 12.4일 1,082.1원까지 하락
 - 원/달러 환율이 1,1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'18.6월 이후 처음

원/달러 환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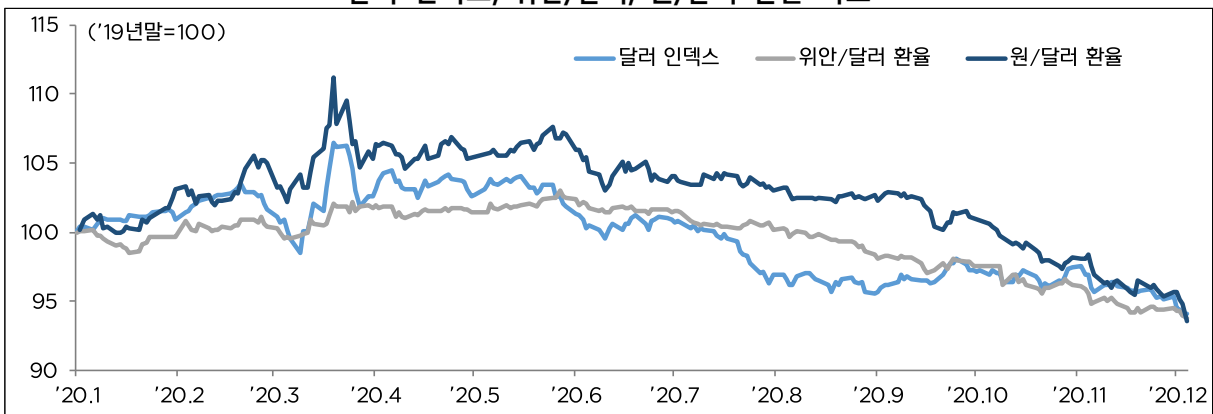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최근 원/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은 ① 달러화 약세, ② 위안화 강세, ③ 수출 회복, ④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, ⑤ 백신 개발 관련 긍정적 소식에 주로 기인

- 대외적으로는 6월부터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 흐름으로 원/달러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
 - 달러 인덱스*는 5월말부터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한 가운데 11월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 이후 추가 하락
 - 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- 위안화는 중국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, 대중국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6월 이후 강세를 시현
 - 5.27일 7.17위안까지 상승하였던 위안/달러 환율은 11월 중 미-중 무역분쟁 이전 수준인 6.5위안대까지 하락
 - 12.4일 현재 달러 인덱스, 위안/달러 환율, 원/달러 환율의 연초 대비 하락률은 각각 $\Delta 5.9\%$, $\Delta 6.2\%$, $\Delta 6.4\%$ 로서, 원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상승폭은 메이저 6개 통화 및 위안화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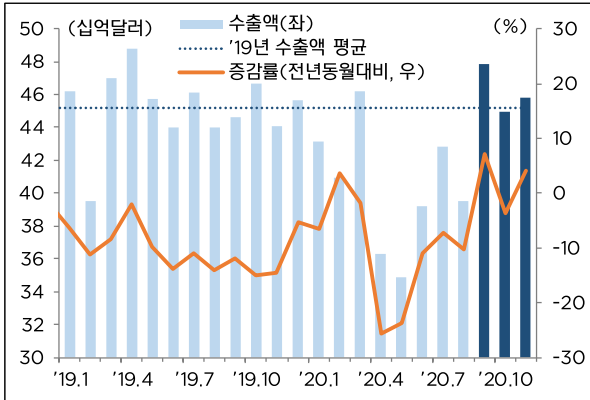
달러 인덱스, 위안/달러, 원/달러 환율 비교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대내적으로는 9월 이후 수출 회복,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여 원/달러 환율의 하락이 가속화
 - 4~8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던 월별 수출액은 9월부터 '19년 평균 수준을 회복
 -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9월 85.2억달러, 10월 58.3억달러, 11월 59.3억달러 등 높은 수준 유지
 - * 1~8월 중 무역수지는 총 186.8억달러, 월평균 23.4억달러 수준이며, 4월($\Delta 16.2$ 억달러) 외에는 모두 흑자
 - 11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수로 전환되어 환율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
 - 3월 이후 두드러졌던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는 9~10월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11월에는 순매수로 전환
 - 11월 코스피는 최고점 경신을 이어가며 12.4일에는 2,731.45pt까지 상승

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외국인 주식 순매수(연초 이후 누적) 및 환율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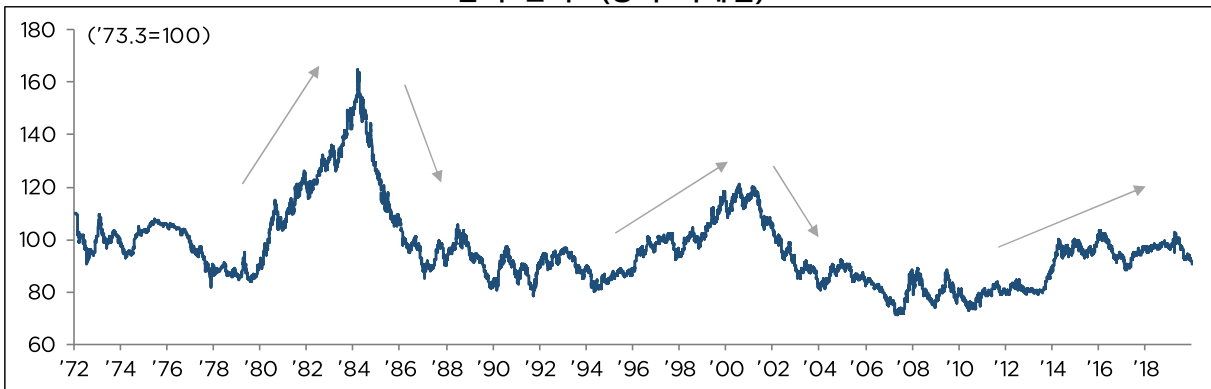
○ 11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*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가운데 12.2일 (현지시각) 영국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

- *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제약사는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%를 상회한다고 발표
- 미국, 유럽 등에서도 본격적인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코로나19 억제 및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며 환율 하락에 기여

□ 달러화 약세, 위안화 강세, 한국의 수출 증가, 외국인 투자 증가 등 지금까지 원/달러 환율을 하락시켰던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되어 환율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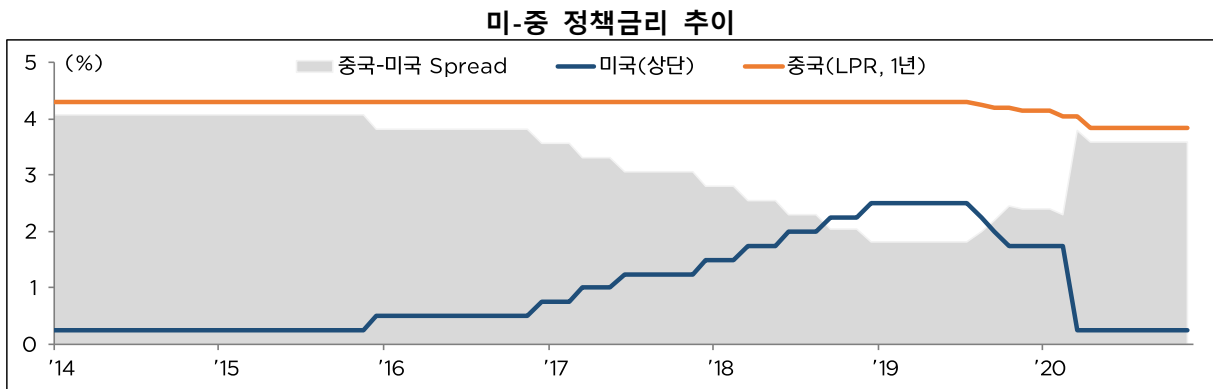
- 달러화는 미국 정부의 확장재정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약세폭이 확대될 전망
 - 달러 인덱스를 장기 시계열로 살펴보면, 대략 15년을 주기로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고 있어 달러화가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
 -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*
 - * 향후 1년간 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골드만삭스가 약 6%, ING가 약 10% 추가 하락을 예상하였으며, 씨티는 '21년 중 20%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

달러 인덱스(장기 시계열)



자료 : Bloomberg

- 위안화의 경우, 중국 정부의 쌍순환 정책* 추진에 따른 강세 예상
 - * 기술자립·내수위주 성장과 대외개방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14차 5개년('21~'25년) 발전계획의 핵심
 -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가운데 미-중 금리차가 확대되어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유인이 강화
 - 이와 더불어 위안화 강세가 내수촉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개연성이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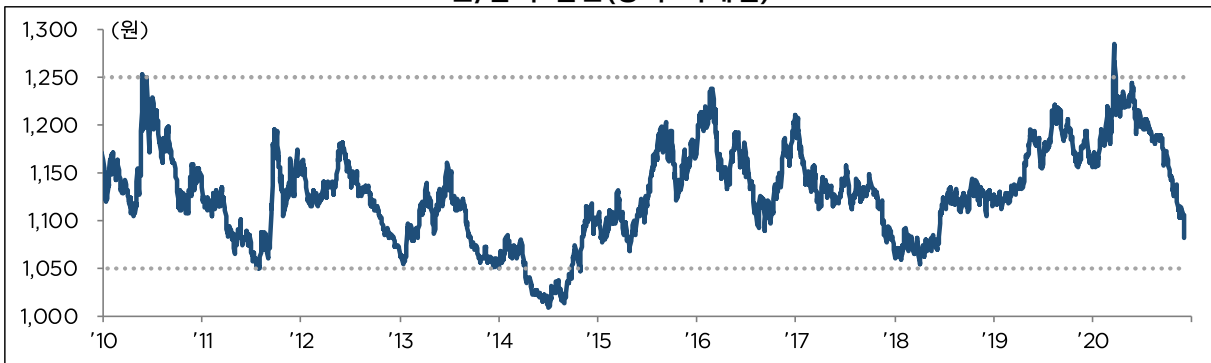
- 대내적으로는 수출 증가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기조가 유지될 전망
 - '21년 세계경제 회복, 교역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 예상
 - 이에 따라,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며 달러화 공급 증가에 따른 환율 하락압력 예상
 - 다만, 외국인 주식투자는 주요국의 생산활동 정상화에 따른 투자포트폴리오 리밸런싱, 차익실현 등으로 매도 발생 및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도 가능
- 또한, 주요국의 본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면 위험선호가 더욱 자극되어 원/달러 환율의 추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

□ 다만, 수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백신 안전성 관련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 가능

-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, 가파른 하락에 대한 당국의 경계 등은 원/달러 환율의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
 - 11.25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*의 “최근 수출기업의 환율 인식과 영향 조사”에 따르면, 응답기업의 65.5%가 환율 하락시 수출액 감소를 예상
 - 또한, 현재 환율이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*을 이미 하회
 - *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 : 대기업 1,126원, 중견기업 1,135원, 중소기업 1,133원

-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의 환율 하락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, 향후 과도한 변동성, 일방향 쏠림이 지속될 시 당국의 경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
- '10년 이후 원/달러 환율은 주로 1,050~1,250원 범위에서 등락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하락에 대한 부담도 존재

원/달러 환율(장기 시계열)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한편,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곧 시작될 것이나,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·금융 전반뿐 아니라 원/달러 환율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음
 -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의 완화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
 - 코로나19 백신이 '패스트 트랙' 하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
 - 최근의 조사*에 따르면, 백신 접종의사가 있는 미국 국민 비중이 60%를 기록하여 지난번 조사(9월, 51%) 대비 증가하였으나,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 역시 62%를 차지
- * [Pew Research Center\(20.12.3\), "Intent to Get a Covid-19 Vaccine Rises to 60% as Confidence in Research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"](#)
- 예상치 못한 백신의 부작용 발생은 경기회복의 속도 및 기대를 약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가능